



태풍 이겨낸 당근밭에서 김매기 화창한 날씨를 보인 19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당근밭에서 농업인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강희만기자

“추석연휴 고비... 코로나19 막아라”

사실상 26일부터 연휴... 내달 4일까지 30만명 입도 전망
 제주지역 수도권지역발 확진자 산발적 발생 이어져 긴장
 원 지사 “방역수칙 안지키는 입도객에 강력 페널티 부과”

추석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 등이 대거 제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수도권지역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가 올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 제주도는 제주 방역의 최전선

인 공·항만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인다.

제주도는 사실상 추석연휴의 시작을 오는 26일로 잡고, 10월4일까지 추석을 포함 연휴기간에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20만 여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 회의를 통해 “추석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

하는 특별행정조치 발동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도는 입도객 중 발열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추후 발동할 예정이며, 수의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발열자 본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격리 조치된다.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은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추후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활동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추석연휴기간(30일~10월4일) 관광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집중 계도하고 사업체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도·행정시·관광공사·관광협회 합동으로 도내 652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석연휴 대비 방역 실태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지난 17일 오후 늦게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제주 57·58번)가 잇따라 발생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인 제주57번 확진자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제주에 들어온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동선이 최소화됐다. 제주 58번 확진자는 수도권 확진자(부천 328번)의 접촉자다. 이보다 앞서 지난 5~9일 수도권을 방문했던 일가족 3명(제주54~56번)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오은지·이태윤기자

교육부 “수능 난이도 조정 신중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난이도 하향 건의에 부정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방침 존중
 모의평가서 점수 차이 없어...
 예년처럼 수능 기조 유지 예상
 내달 시험장 방역대책 발표예정

코로나19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난이도를 낮게 출제해야 한다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건의에 대해 교육부가 선을 그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건의한 “2021학년도 수능 난이도 조정 요청”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수능 난이도 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1일 ‘고3 학생을 위한 대학 입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을 쉽게 내야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혼재되는 등 고3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 수능은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침은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능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실시한 모의평가 결과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의 성적 차이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올해 수능이 예전보다 쉽거나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9월 모의고사 난이도 역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을 예정대로 12월 3일에 시행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으며, 다음달에는 코로나19 관련 수능 시험장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내달 13일부터 전도민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도, 물량 29만6000도스 확보
 53만6000명 지원대상 될 듯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3일부터 전도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 도민 무료 접종 지원은 환

절기를 맞아 증상이 흡사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비슷한 증상의 감염병 동시 유행)’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차단을 위하여 추진되는 조치다.

의료전문가들은 집단 전체가 방어력을 갖게 되는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체의 65% 이상이 백신이나 감

염을 통한 항체 형성을 통해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주도는 의료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도민들이 집단면역을 갖출 수 있도록 ‘생후 6개월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와 만 62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독감접종 대상 24만명을 포함한 전도민의 80% 수준인 총 53만6000명이 이번 무

료접종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가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 예방접종 백신 접종 물량인 총 29만6000도스를 확보했다. 나머지 국가사업 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24만도스로, 위탁 의료기관 등에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293개소)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64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튀는 교육특강 20탄**

1. 알림
 한라일보사는 도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론 학부모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여 교육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01 보스턴 마라톤 제패와 더불어 애플랜드를 림프 은메달, 방콕 아시안게임과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 **마라톤의 이봉주** 씨를 초청해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특강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는 물론 학생의 장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제 : 인생은 마라톤이다
 ▶강사 명 : 이봉주(체육인/방송인)

•일 시 : 2020년 9월 23일(수) 오후 1시
 •장 소 :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1-3학년 각 교실(비대면 강의)
 •대 상 :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전학년
 •수강료 : 무료
 •주 최 : 한라일보사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 의 : ☎ 064)750-2523/2540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도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마음을 더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위한
“영상감시 솔루션 전문기업”

(주)월드씨앤에스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그리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상감시장비 및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 제조, 공급합니다.

(주)월드씨앤에스 대표이사 김용광

